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골1:24-2:3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요 율법학자요 석학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성경의 비밀을 처음부터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찾아낸 진리에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과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숨겨둔 큰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곡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유대사회의 엘리트학자였고 랍비였기에, 예수 믿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명으로 인해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골 1:24)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은 사도바울을 오래 전부터 복음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두셨습니다. 기고만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날 때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 1:25)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로서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무가치한 인간들의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골 1:26)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취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나 인간은 죄로 철저히 부패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그리스를 믿는 것입니다. **“(골 1:27)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비밀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폭발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 복음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골 2:4)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공교한 말은 그럴듯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아주 설득력이 있는 세상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하나 성경 뿐입니다. 당시 그리스철학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유대교에도 심오한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사상들이 전부 그럴듯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지식일뿐이었습니다. 본문에 ‘속인다’라는 단어는 장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현혹시켜서 사기를 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물건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훈에 속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근원적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장 6 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 장 12 절에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사상도 시대와 시대의 풍조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진리인 것은 그것이 영원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상천하에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진리는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일까요?

처음 골로새교인들은 무슨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받았기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적인 종교들을 동원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식한 신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진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고차원적 철학을 내세우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가장 큰 지혜요 가장 높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그리스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자라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 지혜도 귀합니다. 삶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지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도가 응답되거나 부흥이 오는 일은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비밀 열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며 빛이십니다. “(요 1:4)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절망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빛이 임하면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전기적 빛으로는 안됩니다. 오직 태양빛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빛’이란 바로 태양과 같은 빛을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자라게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영혼이 소생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내어 놓고 빛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던 사람도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면 얼굴이 어두워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 영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과일도 일조량이 많아야 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주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건강해 집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영혼이 소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 6:47-48)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바로 예수님께로 나가면 생명의 떡, 즉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하는 양식인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죽음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슬픔도 걱정도 없는 곳에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며 생명을 가진 성도의 특권이며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갈 길을 열어 주시고, 핍박을 당해도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끌어안고 있으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그곳에 구원도 있고 성령도 있고 건강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며 체험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적 습득’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전환이 일어났던 경험들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깨달음들을 나눠 주십시오)
3.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양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입장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4.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개인과 가족들의 간증들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5. 4월 20일에 예정된 새생명축제를 위한 VIP선정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명단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